

# 환경문제와 기독교윤리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 Ethics of Christianity

김진성

- I. 서론
- II. 환경과 경제성장
  - 1. 환경의 정의
  - 2. 환경의 역할과 기능
  - 3. 경제성장과 환경
- III.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접근
  - 1. 경제활동과 환경
  - 2.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해결
- IV. 환경문제와 기독교 윤리
  - 1. 지속가능개발과 윤리
  - 2. 환경문제의 기독교 윤리에 의한 접근
- V. 결론

## Abstract

As we approach the twenty-first century, it is natural to say that human beings face many environmental challenge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this planet. Largely through human activity, many of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caused and life on earth faces the greatest mass extinctions. Even though those human activities lead us to be in economically better condition, the current environmental situation is really serious.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economic methods, used to cure tho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neither sufficient nor efficient. What is needed is a more radical philosophical and ethical approach. In that sense, there is much need for the help of christian community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

## I. 서론

1972년 Stockholm에서 열린 UN의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문제가 전세계적 윤리의 문제로 공식 제기되었다. 이에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세계적 윤리의 차원으로 끌어 올릴 때 가능하다는 사고가 진전된 것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리우지구환경선언”이 발표되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환경정책으로 천명하기에 이르렀고,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여러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위원회>(Commi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설립되었다. 1993년의 1차 회의에서는 1997년까지 범세계적인 지속가능개발의 조건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환경에 대한 협약을 제정하고 국제적인

---

\* 본 논문은 1995년도 통합연구학회 학술발표회에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과 경제성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실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완전한 예측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현재와 같은 각국의 개발정책은 환경을 매우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인간이 생존불가능한 상태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7월 9일자 중앙일보에 인용된 미국의 환경전문연구기관인 <World Watch Institute>의 'World Watch' 7, 8월호에 발표된 연구결과는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대기 및 환경오염, 지구의 온난화, 삼림황폐, 수질 오염, 이동인구의 급증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각종 전염병이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현재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환경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경제학적 해결책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기독교 윤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로써 거론되는 경제학적 방법론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일말의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그 해결책의 근간이 환경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 논리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것이므로, 윤리적, 종교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논하고자 한다.

## II. 환경과 경제성장

### 1. 환경의 정의

환경이란 어떤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생태학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연적인 외적 조건의 총합으로서 인간에게 유용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대기오염에 의해 점차 고사해 가고 있는데 만약 남산에 올라가 소나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기오염은 그러한 사람들의 복지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이고, 남산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소나무의 고사 소식은 장래에 있을 지도 모를 효용발생가능한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불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문제를 논할 때 인간에 대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포함시켜야 한다.

## 2. 환경의 역할과 기능

환경은 인간에게 우선 경제활동에서 생긴 폐기물의 수용자(waste receptor)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환경은 생산활동의 부산물로 발생된 오염물질들을 분산시키고, 축적하며, 스스로 정화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만일 자연에게 오염물질들을 흡수해서 대사작용을 하는 자정능력이 무한하다면 환경오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실제로 환경의 자정능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 받게 된다.

또한 환경은 경제체계 내에 원료와 에너지도 제공한다. 그밖에도, 환경은 인간과 다른 생물군들이 생활하는 안락한 서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자연환경의 일부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위락기능을 한다.

## 3. 경제성장과 환경

경제발전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적 행위이다. 즉 한 국가가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집합을 경제발

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유익한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서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장옹호자들이 있는가 하면, 경제성장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성장론자들도 있다.<sup>1)</sup>

경제발전은 부의 축적과 과학기술의 발전, 식량,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해결해 왔으나, 반면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 인종·성별 간 차별,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6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산업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생산자원에 대한 제약조건 또는 이들의 소비증가가 가져올 공해에 따른 제약조건들을 공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즉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생산자원이 무제한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와, 토양, 바다, 대기 등의 오염 정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별 어려움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경제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이러한 가정들이 서서히 도전받기 시작하였고, 점차 산업사회 이후 예상되었으나 무시되어 왔던 환경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인구의 증가와 경쟁의 증대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고, 경제성장의 추구는 자연자원의 이용을 증대시켜 유한한 부존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간다. 또한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환경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일으키고, 경제발전의 강화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의 마찰과 가치관의 변화, 빈부격차의 심화, 인구의 집중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 그밖에도 국토의 구조와 토지 이용의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경제적 풍요에 있고, 경제적 풍요는 물질의 풍요 또는 소득수준의 제고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물질의 풍요는 생산의 증대로써 이루어지고, 소득수준의 제고는 이윤의 확대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생산활동은 필연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한 환경문제는 경제성장의 제약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관계는 상호수수적(相互授受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근년에 와서

1) 성장옹호론과 반성장론에 대한 논의는 이정진(1994) pp. 297~310을 참조하라.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이유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왔다.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성장론자들은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다. 즉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규제는 생산물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또한 이러한 가격의 상승은 생산물의 판매를 줄이게 하고, 결국에는 자원의 활용을 줄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속도나 크기가 줄어 들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의 질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해방지 시설산업이 탄생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어 환경규제를 통해 에너지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등과 같은 재생불가능한 자원들이 보존되어 장래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을 통한 양적 팽창이 언제까지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임이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표 1>을 보면 실제로 세계의 경제성장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그 성장율이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의 질저하와 자연환경계의 한계로 인한 제약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제확대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성층권의 오존고갈, 지구온난화 등의 피해가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환경비용이 누적되면 환경의 질저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환경의 질저하는 식량생산, 주택, 보건, 교육 및 기타 필수적인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국가경제의 역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국가들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근래에 와서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총생산이 사회복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원래 의도한 국민수준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 결과,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환경오염 등의 가치를 포함하는 경제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sup>2)</sup>

우리 나라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문에서 “우리는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정신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개념과 …”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의 양적성장만을 추구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은 무시하여 온 결과, 환경오염과 에너지 이용의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양적팽창 일변도의 정책을 정당화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을 축소시켜 그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 1> 10년 단위로 본 세계의 년평균 경제성장 추세(1950-1992)

기 간	세계의 성장률	1인당 생산고의 증가율
1950 - 60	4.9	3.1
1960 - 70	5.2	3.2
1970 - 80	3.4	1.6
1980 - 90	2.9	1.1
1990 - 92	0.6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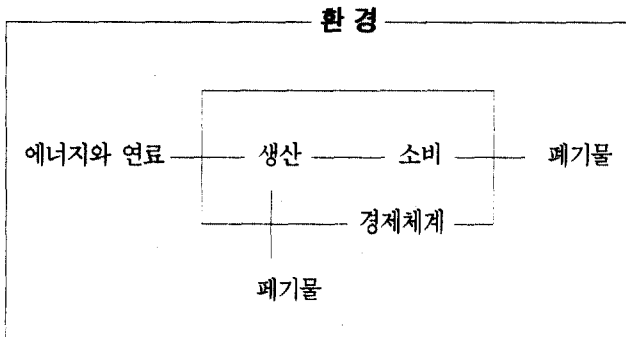
자료: State of the World(1993)에서 재인용

2) 이러한 지표들에는 Measure of Economic Welfare, 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Green GNP 등이 있다.

### Ⅲ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접근

#### 1. 경제활동과 환경

환경문제는 인간이 자연을 잘못 이용하여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문제이고 따라서 자연과학을 통해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상인 경제활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은 인문·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 때 경제활동이란 우리 인간사회의 물질적 토대가 되는 끊임없는 소비와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활동이 영위되는 범위를 경제체제라 하고, 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경제체제와 환경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은 경제체제에 원료와 에너지를 제공한다. 생산부문은 이들 원료와 에너지를 이용하여 각종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라는 원치않는



부산물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폐기물이 소비부문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생산부문 내에 축적되거나 또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소비부문에서도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부산물을 환경으로 내보내게 되며, 에너지와 연료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부산물 역시 환경으로 되돌려 보내진다. 따라서 환경은 경제체계에 원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환경계에서 사용된 원료 및 에너지의 부산물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통해 폐기물의 수용자 역할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이 환경의 다른 기능에 물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환경을 관리되어야 할 하나의 자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계로부터 경제체계 내로 유입되는 자연자원의 양과 형태, 그리고 경제체계로부터 환경으로 다시 방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양과 형태는 경제활동의 규모와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느냐에 따라 경제체계로 유입되는 자원의 물량과 종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고갈이나 심각한 환경문제의 대두는 우리의 생산활동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 2 환경문제의 경제학적 해결

경제학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효율성을 다루는 학문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시장경제체제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국민 복지를 최대화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고 분배하느냐에 있고,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시장가격기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도 경제활동의 규모와 형태는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파괴 역시 시장원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장원

리에 의해 해결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시장실패 때문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기구의 결점을 보완하려는 경제학적 노력이 나타났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시장실패의 중요한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많은 경우에 환경자원들은 소유권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또 소유권을 행사할 제도적 장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즉 소유권이 있는 재산의 경우는 소유자가 그 재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타인이 그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응하는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으나 자연환경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환경자원의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sup>3)</sup> 일단 공급된 공공재는 재화의 특성상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비가능하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이 재화의 공급자는 이익을 보는 사람으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즉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 즉 가격을 치르고,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는 보상을 받게 되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때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세라든가 배출부과금제도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나, 환경에 대한 재산권 혹은 이용권을 정부가 설정하고 이를 환경 이용자들에게 부여하여 환경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도록 해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경제학적 접근방법이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3) G. Hardin(1968)은 환경을 공유의 것 또는 공유재로 표현하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출부과금의 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환경오염피해 진정건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2> 배출부과금징수 및 환경오염 피해진정건수 추세

연 도	부과금징수건수 및 금액		피해진정 건수	
	대 기	수 질	대 기	수 질
1983	11 (14)	223 (98)	229	110
1985	314 (414)	1,380 (1,329)	185	136
1990	587(1,129)	2,629 (8,840)	126	151
1993	743(1,921)	3,007(10,710)	421	283

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년감」, 1-7호

( )는 피해액으로 단위는 백만원임

또한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나라의 환경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되어도 환경피해 보상액의 크기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건당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접근방법이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경제분석에서는 욕망 또는 선호와 신념 또는 가치라는 것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경제학은 단지 시장에서 어떤 실체로 표현되는 인간의 욕망이나 선호를 다루게 된다. 이 때 시장은 소비자의 선호의 정도를 가격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측정하게 해 주며, 각 개인 간의 선호의 정도를 측정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의 무한한 욕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을 찾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이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를 측정하게 하거나 수량화시켜 주지는 못하는데,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이러한 신념이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우리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공의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맑은 공기, 물 등이 왜 가치가 있으며,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왜 가치있는 일인가 등을 정당화해야만 한다. 이 때 이러한 가치와 의

<표 3> 환경관련 예산과 환경오염 피해보상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환경관련예산 <sup>1</sup> (단위 : 억원)	피 해 보 상 규 모		
		대 기	수 질	총 피해규모
1980	—	11 (155)	25 (399)	38 (558)
1985	877 (0.12)	14 (1,018)	4 (153)	22 (1,220)
1990	2,524 (0.16)	8 (3,279)	4 (202)	14 (3,493)
1991	4,963 (0.24)	8 ( 676)	13(4,431)	22 (5,128)
1992	5,706 (0.25)	13 (2,707)	3 (17)	18 (2,826)
1993	-	12 (2,243)	4 (57)	19 (2,338)

자료 : 환경부, 한국환경년감, 1-7호

1. ( ) 안은 GNP 대비 %

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그러한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든가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자본주의 시장체제하에서 각 개인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이러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억제하여 한계를 정할 수 있는 어떤 지고(至高)의 사회적 가치가 확고히 정립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인간 사회의 가치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이 효과적으로 절제되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Schumacher는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당면문제는 가치체제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지, 기술적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sup>4)</sup>

결국 경제학적 해결책이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이르지 못하므로 다른 수단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윤리적, 종교적 차원의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E. F. Schumacher, "The Age of Plenty, A Christian View", in H. E. Daly and K. N. Townsend ed., *Valuing the Earth*, Boston, The MIT Press, 1993, p. 164.

## IV. 환경문제와 기독교윤리

### 1. 지속가능개발과 윤리

1945년 UN이 창설된 이후 정의와 인권보호라는 원칙 아래 새로운 국제 경제, 사회질서를 위한 협동을 추구해 온 UN정신은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 공공의 도덕적 변화와 환경보존·개발에 대한 도덕적 차원을 강조해 왔다. 1972년 UN의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문제가 전세계적 윤리의 문제로 공식 제기되었고, 1988년 World Conference on the Changing Atmosphere에서 노르웨이의 수상 Gro Harlem Brundtland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up>5)</sup> UN의 환경과 개발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세계적 윤리의 차원으로 끌어올릴 때 가능하다고 피력하고 있다.<sup>6)</sup>

지속가능한 개발을 우리의 새로운 도덕적 기준과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수용하려면 지속가능개발이 어떠한 생태적, 사회적, 정치적, 개인적 가치를 제공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도덕적 요구와 동식물과 생태계와의 조화와 합치될 수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즉 어떤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윤리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경제개발전략에 환경부분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리 큰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류가 생존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과학, 기술, 경

5) Engel, et al., *Ethic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90, p. 104.

6)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 308.

제개발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윤리적, 신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sup>7)</sup>

## 2. 환경문제의 기독교 윤리에 의한 접근

L. White(1967)은 인간이 자연계의 다른 사물과는 달리 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기독교의 교리가 인간이 다른 사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월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으로부터 인종의 번성을 위해 자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를 당연시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편 8편 1-9에서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하심으로 자연자원이 우리의 육체적 즐거움, 경제적 이익,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대상물이 됨으로서 탐구의 목적물이 되고, 인간이 그러한 탐구를 하는 주체로서 주종관계에 있게 되고, 따라서 만물을 다스릴 권리가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해석되고 있는 것이

---

7) 이정전(1994)은 도덕적 권고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단 사람들이 환경의 잘못사용에 따른 해를 바로 깨닫게 되면 그들의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해석은 다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후대하시겠다고 생각하며, 창조를 거역하고 불화합한다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리라고 생각하는가? 기독교의 역사관은 윤리적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의 인간성이 인간의 반역에 의해 인간 뿐 아니라 삶의 전체적 조화를 무너뜨렸고, 이러한 파괴적 인간성의 요소가 여전히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와 인간성에 대한 관념이 매우 비관적이다. 인간이 세계를 지배할 권한이 주어졌지만 죄 때문에 이러한 특권이 남용될 때 인류와 자연이 죽음과 멸망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구성물들이 창조되어진 것이고, 인류는 창조주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균형을 이룬 창조의 가장 핵심부분이다. 인류는 지구의 두 요소인 먼지와 물로 빚어졌기 때문에 지구는 인간과의 관련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어떤 도덕율의 지배를 받으며 이러한 도덕율은 하나님의 창조와 지구에 주어진 인류의 역할로부터 시작된다.

인류가 갖는 역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물들을 사용하고 이득을 획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인류의 동반자인 다른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은 지구의 생태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 하에 존재하는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이 환경에 주는 영향과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은 상호간에 매우 크다. 즉 인간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생태계에 준 영향은 직·간접으로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대자연의 한 구성분자로서의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긴밀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사고를 생태중심주의(Ecocentrism)라고 한다.<sup>8)</sup>

8)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을 인간을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기술지향주의의 자연관과

창조이래 생존체계의 변화에 한 가지 추세가 있다. 생존체계가 새로운 중의 추가발현으로 점차 복잡해져 가고 있다. 원래 생명은 태양에너지에 근원으로 하여 생태 윤리학적 윤회를 하며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생산에 있어서는 농업체계가 자연생태체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것이다. 즉 원래의 자연생태체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농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여타의 요소들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다. 농업생산은 자연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빛, 물, 영양분, 온도, 병충해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을 어떻게 최적화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인류에게 필요한 음식물을 얻기 위해 인간은 동식물을 생산하기 위한 자연환경체계를 변경시키고 있는데, 이것에는 노동과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고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는 투입이 더 많아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단계에서는 화학화와 기능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생산성은 낮았지만 생태학적 균형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 소득증가와 대량소비체계의 확산을 가져온 경제성장의 단계에서는 자원의 고갈이 발생되고 생태학적 균형이 깨어지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지역, 문화, 생태계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지역의 한 개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가 다른 지역,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생태계의 일부 구성원이 균형적 순환과정을 무시한다면 해당 구성원 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위협, 파괴한다는 생명의 법칙을 재인식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다룰 때 생태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윤리의 문제인데, 그 이유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인간이나 다른 사물들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또는 자연적인 문제가 신앙생활

---

대비되는 사상이다. 자세한 것은, 김명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윤리”, 「환경행정」, 제1권 1호, 1993을 참조하라.



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한편으로는 아름다우나 오염되고 훼손될 수 있게 창조된 우주를 잘 보존,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모든 활동이 사랑의 대상인 우리 형제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은 무너지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도록 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사야 11장 6-9절에서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생명, 죽음, 부활”을 다시 시도하며, 인류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인식함으로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지금의 생활방식이 끝나게 된다. 결국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우주를 회복시키며, 정의, 평화, 조화된 세계에 사는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모든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 기독교적 윤리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실천되어야 한다.<sup>9)</sup>

9) Schumacher는 Daly, et al.(1993)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소규모화, 단순화, 자본의 절약, 비폭력을 이야기하였다.

우리 나라의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회 수가 43,507개, 성직자 수가 93,115명, 신도수가 17,521,123명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보호, 보전하도록 하는 환경보전행위가 윤리규범이 되도록 기독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환경문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sup>10)</sup> 예를 들어 기독교인 한사람이 하루에 현재 폐기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10%만 감소시킨다고 해도 하루에 2,649톤의 생활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대변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 V. 결론

기술집약과 자원의 과잉사용에 따른 경제개발이 환경의 질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많은 나라들과 정부기관들이 지구와 여타의 피조물들 간의 관계를 유지·재조정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현가능케 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전환에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윤리적 전환이 없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기술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이러한 방법은 또 다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윤리적으로 공허한 것은 근본적인 가치를 중시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권리와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할 뿐 치유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날마다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자연적인 문제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우리는 절제함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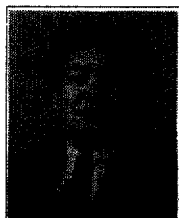
10) 종교단체가 제출한 1992년 12월 31일 현재의 통계를 집계한 문화체육부의 내부자료에서 인용하였다.

11) 1993년도 말 현재 전국 평균적으로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1.512kg이라는 환경청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계된 것이다.

잘 보존·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우리들과 후손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보호, 보존하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적 윤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 참고문헌

- 구자건 외,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 도서출판 따님, 1992.
- 김명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윤리”, 「환경행정」, 제1권 1호, 1993.
- 이승환 역, 「지구환경과 세계경제 1」, 도서출판 따님, 1992.
- 이정전, 「녹색경제학」, 한길사, 1994.
- 환경부, 한국환경년감, 1988~1994 각 년도
- Daly Herman E. and Kenneth N. Townsend, *Valuing the Earth*, The MIT Press, 1993.
- Desjardins, Joseph R., *Environmental Ethics*, Wadworth Publishing Company, 1993.
- Engel, J. Ronald and Joan Gibb Engel, *Ethic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0.
- Hardin, Garret,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 1968.
- White,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155, 1967.
- Wilson, E. O., “Threat to Biodiversity”, *Scientific American*, 261(3), 1989.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World Watch Institute, *State of the World*, 1993.



### ■ 김진성 ■

1954년 생, 고려대 졸업, University of Kansas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 취득, Ferris State University 조교수 및 (주)교보루지자문 연구위원 역임, 현 고려대학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